



리가 분명히 크리스찬인 줄로 알게 되므로 전도할 기회가 많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 연구의 결론은 삼위일체 곧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의 그림을 만드는 것은 십계명 중에 제 2 계명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칼빈주의에 의하면 이런 초상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심과 예식

에서도 그러한 그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완전한 여호와이시며, 완전한 사람되시며, 지금도 지구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초상을 다 지워야 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 ◁ 서평 ▷

## 『신약 정경론』

A.B. du Toit 지음  
권 성 수 옮김

엠마오/신국판 양장/338쪽/4,500 원

이 승 미 (고신대신학대학원 교수)

총신대 신학 대학원 권성수 교수의 노고로 번역된 「신약 정경론」은, 본래 「*Handleiding by die Nuwe Testament*」(Band I)의 영문 번역판인 「GUIDE TO THE NEW TESTAMENT I」(1979, N. G. Kerkboekhandel: Pretoria) 의 제 2 부(pp. 77-271)인, A. B. du Toit의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에 대한 한글 번역이다.

듀 토잇 박사는, University of Pretoria의 신약학 교수요, 남아 신약 협회(NTWSA) 총무와 위의 「신약 입문」 시리즈(1-6 권) 출판의 편집장으로, 신약학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해 온, 개혁주의 입장에서 서 있는 건전한 보수 학자이다.

듀 토잇 박사는 본서에서 많은 문헌을 근거로 하여, 신약 정경을 주로 두 근본 국면에서 다루고 있다. 그 첫째는 정경의 근본적, '신학적' 노선이며, 둘째는 정경 발전의 역사적 노선이다. 제 3 장(pp. 37-169)에서는 전자의 내용을, 제 4 장(pp. 171-338)에서는 후자의 것을 취급하고 있다. 제 1 장과 제 2 장은, 사실 본서의 본론에 대한 서론적인 간단한 부분으로, 구약과 신약 정경론과의 관계와, 신약 정경론의 중요성을 제 1 장(pp. 9-18)에서, 그리고 정경(canon)에 대한 주요 개념들과 그 역사 개관, '정경적'과 '영감된'이라는 용어들 사

이의 관계 및 신학 정경론의 정의를 제 2 장(pp. 19-35)에서 각각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신약 정경의 근본적(‘신학적’) 부분을 다루면서, ‘그리스도는 신약성경의 정경성의 기원이다.’(“Christ is the principium canonicitatis of the New Testament”) 혹은 ‘신약성경이 정경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경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신약 27 권을 정경되게 하는 첫째되고 근본적 권위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에다 두고 출발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과 사역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유일하고 권위있고 규범적인 말씀-달리 표현하면 단 하나의 반복될 수 없는 절대적인 정경으로 존중되었다. 다른 모든 신약의 규범적 형태들은 단지 파생된 권위만을 소유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오로지 그로부터만) 다른 모든 신약의 증언과 문서는 적법성을 부여 받는다.’(p. 45) 정경 발전의 역사적 부분에서는, 로마의 클레멘트로부터 5세기까지를,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역사상의 어떤 유명한 종교 회의나 교회가, 혹은 어떤 유명한 인물이 어떠한 책을 정경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절대적 권위에 의해 구성된 본유적 권위

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 교회는 단지 이 책들을 신약 정경으로 묶음으로써, 그들이 원래부터 정경적 권리를 갖고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확인한 것임을 결론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계에서는, 신약 27 권을 정경(canon)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근거를 주로 각 책의 사도성(apostolicity), 보편성(universality), 교리의 일관성(consistency of doctrine), 영감성( inspiration) 등의 관점에 강조를 두어 설명,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해 왔다. 신약 정경에 대한 그 이상의, 보다 깊고 권위적이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연구, 고찰하려는 노력은 실제로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리하여 신학적이고도 논리적인 충분한 설명이 없이도 대체로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신약 27 권 모두를 절대적 규범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교계의 풍토다. 이런 때, 훌륭한 번역을 통한 듀 토잇 박사의 「신약 정경론」의 한국 소개는, 정경론에 대한 부족한 면들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는 귀하고 유익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크게 기뻐하는 바이다. ‘개혁주의 정경관’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본서가, 우리 교계에 많은 유익을 주리라 확신한다.